

#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1-12)

## I.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은 미혹이 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미혹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종말론에서 나왔습니다.

미혹의 수단은 세 가지였습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미혹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내세우고,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고, 사도에게서 받았다는 글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훨씬 정교하게 미혹합니다. 문제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 II. 시한부 종말론을 대하는 성경적 자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 흔들리지 말라: 종말의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날짜를 맞추려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2) 두려워하지 말라: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준비하라며 공포를 심고, 생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재림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 III. 그런데도 왜 미혹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1)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속는 것은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미혹의 통로가 됩니다.

2)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 “나는 알고 싶다, 나는 예외일 수 있다”는 생각, “적어도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이기심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언제나 공동체보다 나 자신,가정보다 나의 구원을 앞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3) 무책임한 현실 도피 때문입니다 : 현실이 힘들수록, 삶이 버거울수록,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미혹과 만날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 Ⅳ. 성경이 말하는 재림 순서 :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성경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한 순서는 알려줍니다.먼저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역사를 보면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락, 쾌락, 물질주의, 성적 타락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세상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누군가가,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막는 도구는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 결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깨어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 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요청입니다.